Eugene's FICC Update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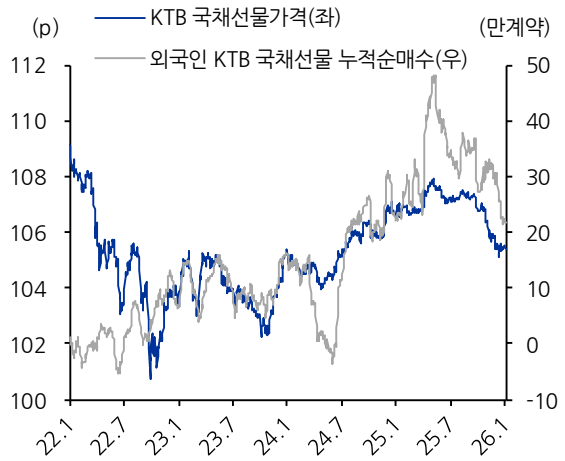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 02)368-6149_ 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 02)368-6138_ jhoonlee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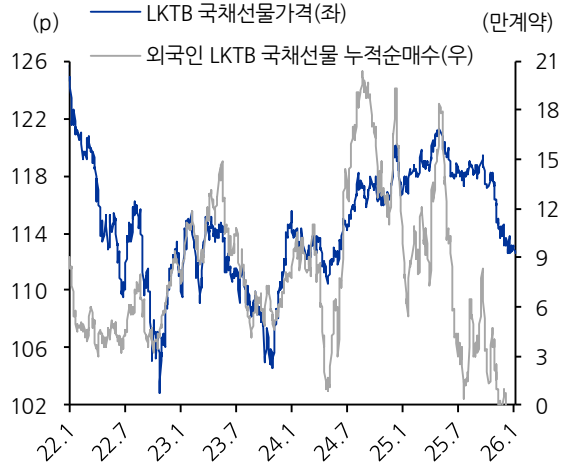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틱)

		1/5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933%	-0.2	-2.5	-2.0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396%	1.0	2.2	1.1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46.3	45.1	41.6	43.2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42	-1.0	-4.0	-2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12.61	-14.0	-47.0	-31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452%	-2.2	-2.8	-2.0
	미국채 10년물	4.162%	-3.0	3.3	-0.6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71.0	71.8	64.9	69.6
	독일국채 10년물	2.868%	-3.0	-2.9	1.3
	호주국채 10년물	4.781%	-4.0	4.1	2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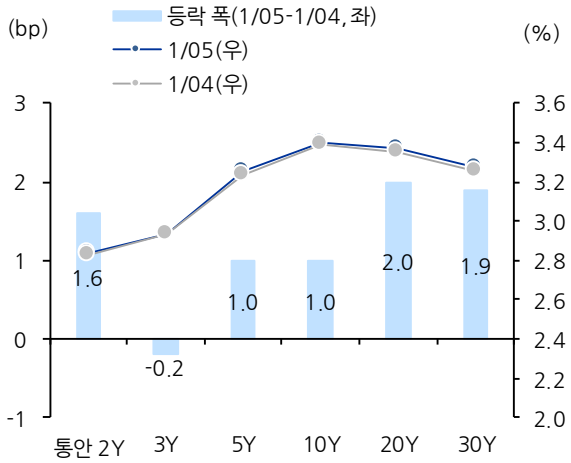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장단기 방향성 엇갈리며 혼조 마감.
- 개장 초 금리 상승 출발. 국고채 30년물 입찰을 앞둔 가운데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규모가 확대되면서 금리 상승세 지속.
- 오후 들어 외국인 순매도 규모 빠르게 줄면서 이에 연동되며 금리 상승폭 반납 마감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불 플래트닝 마감.
-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으로 금리 상승 출발. 총재는 경기가 강한 회복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.
- 투자등급 회사채 20개의 발행 소식도 금리 상승 요인. 그러나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작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금리 하락 반전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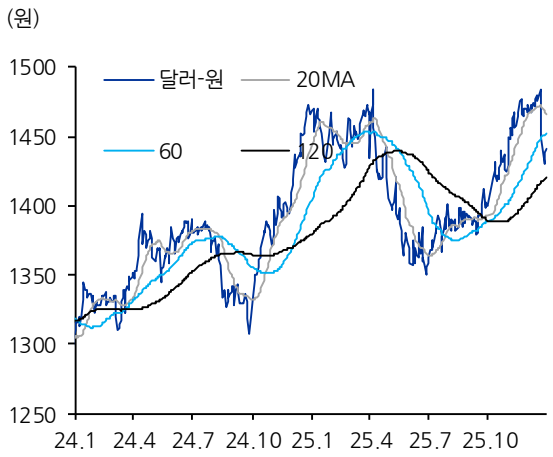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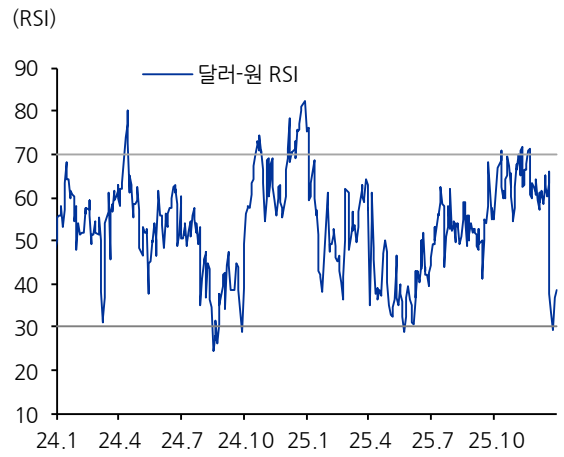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$)

		1/5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443.80	0.1%	-0.4%	0.3%
	달러지수	98.29	-0.2%	0.3%	0.0%
	달러/유로	1.172	0.1%	-0.4%	-0.2%
	위안/달러(역외)	6.98	0.2%	-0.2%	0.0%
	엔/달러	156.34	-0.3%	0.2%	-0.2%
	달러/파운드	1.354	0.6%	0.3%	0.6%
	헤알/달러	5.41	-0.3%	-3.0%	-2.0%
상품	WTI 근월물($)	58.35	1.8%	2.8%	1.6%
	금 현물($)	4,445.24	2.6%	2.6%	2.9%
	비트코인($)	94,520.00	4.8%	8.7%	7.5%
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2.00원 상승한 1,443.8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45.60원 마감.
- 달러-원은 지난 주말 유로화 약세 및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따른 지정학 위험 확대를 반영하며 상승 출발 후 오름 폭을 확대. 점심 무렵에는 1,449.50원까지 올랐으나, 오후 들어 상승폭을 축소.
- 이날 국내증시는 지정학 불안에도 아랑곳 않고 코스피가 +3.4% 급등하며 사상최고치를 재경신.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2조원 가량 순매수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 하락.
- 12월 ISM 제조업지수는 47.9로 3개월 연속 하락해 2024년 10월 이후 최저치 기록. 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과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음.
- 연준 내 매파 인사인 카시카리 미니애 연은 총재는 현재 금리 수준이 중립에서 그리 멀지 않을 수 있으며 관세의 인플레 영향이 길게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발언.
- 한편 베네수엘라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의 공개 압박 이후 미국에 협력하겠다는 제스처를 보내면서 당장은 불안감이 더 확대되지는 않는 양상.